

스물두번째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여행<거창창포원에서>

Contents

- 03 인사말
- 04 현황
- 05 가족소개
- 06 아이들의 이야기
- 07 선생님의 편지
- 08 인애의집 “은별회” 를 소개합니다
- 10 은별회 활동집
- 11 2025년 프로그램
- 12 <소감문> 한일교류캠프를 다녀와서
- 13 <소감문> 한마음 어울림 중국을 다녀와서
- 14 <소감문> 대구 이월드를 다녀와서
- 15 나의 작품 이야기
- 16 2025년 생명존중캠페인
- 17 어린이날 기념 “5월의 어린이날” 행사 참석
- 18 자연과 하나 되는 행복여행
- 21 나의 꿈은 사회복지사
- 23 후원자님께 보내는 편지
- 26 인애의집 사랑꾼
- 27 인애의집 정원을 담다.

2025 연간 Vol.22 | **우리들의 이야기**

발행일 2025년 12월 5일 통권 22호
발행처 인애의집
발행인 윤희영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0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25년을 마무리하며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아이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작은 성장과 큰 변화를 이뤄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사랑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윤희영**

인애의집 현황

1. 기관명 : 인애의집
2. 설립년월 : 1946. 09. 01
3. 기관현황

시설장	윤희영		시설구분	아동양육시설
주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0번지		전화번호	055)246-3069
			팩스	055)298-3444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6조		정원	52명
시설규모	구분	면적(㎡)	세부내역	
	지하1층	311.92	주방, 식당, 소강당, 세탁실, 저수조	
	1층	612.24	사무실, 도서실, 영아전용숙사, 자립지원실, 양호실, 상담실, 문서고	
	2층	578.13	아동숙사 4개동, 교사실, 자원봉사자실	
	3층	578.13	아동숙사 4개동, 교사실, 심리치료실	
총면적	2,080.42			
홈페이지	http://cafe.daum.net/iniae3069			

4. 아동현황

(단위 : 명)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총 인원
남	1	6	3	1	2	13
여	3	7	5	2		17
계	4	13	8	3	2	30

6.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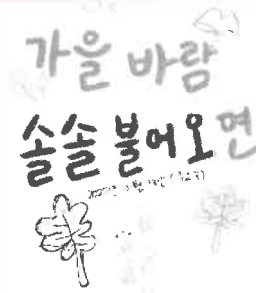
- 1946. 09. 01. 故 해송당 조수옥 원장님에 의해 마산인애원 설립
- 1946. 10. 미 군정으로부터 후생시설등록인가
- 1955. 0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후생시설 인가
- 1957. 11. 09. 재단법인 마산인애원 인가(보건복지부 제337호)
- 1961. 07. 보건복지부 사회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465호)
- 1977. 01.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보건복지부 제429호)
- 1991. 02. 26. 인애원 이전(장군동에서 구암동으로)
- 2002. 10. 28. 설립자 조수옥 원장님 소천
- 2006. 09. 천안 고신대학교 내 故 조수옥원장님 기념관 오픈
- 2007. 08. 04. 마산인애의집으로 명칭변경
- 2007. 10. 보건복지부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 최우수시설 선정
- 2010. 10. 보건복지부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 최우수시설 선정
- 2013. 10. 보건복지부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 최우수시설 선정
- 2015. 03. 01. 기능보강사업(인애의집 증개축 및 장비보강사업)
- 2016. 10. 보건복지부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 최우수시설 선정
- 2019. 10. 보건복지부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 최우수시설 선정
- 2022. 10. 보건복지부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 최우수시설 선정
- 2025. 10. 설립79주년 기념식 진행



인애의집 가족을 소개합니다

사랑집

우리 사랑집을 소개합니다! 사랑집에서는 초등학생인 막내 정우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가끔은 다툼이 생겨 시끌번쩍하기도 하지만, 금새 서로 화해하며 더욱 단단한 우정을 쌓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인애의집 맞춤형 사랑집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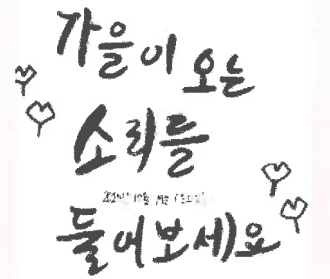
소망집

소망집을 소개합니다!

우리 소망집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신의 끼를 발견 하고 꿈을 키우는 7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초등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남자 아동으로 구성된 소망집은 가끔은 티격태격 하기도 하지만 서로 아끼며 서로 돕고

겸손집

겸손집에는 최강 귀요미 100일이 되어가는 아기부터 대학생이 되는 맏언니까지 8명이 생활하는 최고 귀엽동이 숙소입니다.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다이나믹한 우리 겸손집 친구들이 항상 올바르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은혜집

매일 시끌번쩍하고 한명이라도 없는 날에는 조용한, 함께하면 행복이 배가되는 은혜집을 소개합니다. 은혜집에는 8명의 식구가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슬기롭게 대처하며 티카태카 가족애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매일을 행복하게 지냅니다. 우리는 혜집 많이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이들의 이야기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생후 60일 남자아이는 아직 세상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작은 손으로 선생님 손가락을 꼭 잡으며 “나도 함께 자라요” 하고 말하는 듯합니다.

2살 여아는 예쁜 말들을 또렷이 하며 작은 발걸음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7살 여아는 장래희망이 ‘제과제빵사’ 랍니다. 요리교실에 다니며 “선생님, 나도 빵 만들고 싶어요!”라며 손끝으로 행복을 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살 여아는 ‘나는 커서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어요’ 친구들에게 동화를 읽어 주는게 제일 즐겁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웃음을 나누는 따뜻한 교사가 될 모습이 그려집니다.

12살 여아는 첼로리스트의 꿈을 꾸며 꾸준히 연습을 합니다. 첼로를 연주할 때면 조용히 집중하며 음악 속으로 빠져듭니다.

또 다른 12살 여아는 소방관이 꿈입니다.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두가 그 아이의 따뜻한 용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18살 여아는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길목에서 도움이 되는 사랑이 되고픈 다짐이 참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도 합니다.



겸손집



선생님의 편지

애들아, 안녕.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구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너희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이 떠올라서 문득 마음이 따듯해진다.

선생님이 너희를 만난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네.

그동안 함께 웃고, 울고, 또 서로를 알아가며 쌓은 추억이 하나하나 참 소중한.

때로는 잔소리가 많았던 선생님이었지만, 먼저 다가와 웃으며 인사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던 너희 덕분에 선생님은 매일 힘을 얻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일, 사소한 고민까지 나누던 그 순간들이

선생님 마음속에 따듯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

선생님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언제나 너희가 기대어 될 수 있는 작은 나무가 되고 싶어.

힘들고 외로운 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면 좋겠어.

그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서서, 너희를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거야.

앞으로도 선생님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경험이 너희를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게 해줄 거야.

우리 모두 따듯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자.

언제나 너희를 믿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선생님은 너희 곁에 있을게.



사랑집 조소영



인애의집 “은별회”를 소개합니다.

인애의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스스로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 가는 아동자치 활동 기구, ‘은별회’를 소개합니다.

‘은별’이라는 단어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순우리말입니다. 그 이름처럼 은별회는 아동이 삶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생활 속의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성장하는 아동자치기구입니다. 더 나아가 각종 가족 행사를 직접 계획하고 진행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별회는 아동이 직접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아동자치회를 개최하여, 원내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켜야 할 약속들을 직접 정하고, 서로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생활 중에 새롭게 발견한 불편한 점이나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모아 인애의집 직원회의에 전달합니다.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여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을 스스로 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은별회 활동집



이 외에도, 은별회는 가족들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족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에는 ‘여름, 그리고 우리’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아동들의 역할을 나누고, 공연 내용을 결정하면서 스스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관객을 초대해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공유하며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애의집 은별회는 아동들과 함께 인애의집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은별회는 아이들의 빛나는 앞날에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2025년 프로그램



한마음병원 영화관람



중국여행



설날 나들이



키즈카페



자립여행



메주 만들기



아동 교육



수영 프로그램



어린이날 행사



대구 이월드



창원 로봇랜드



음악회

2025년 프로그램



인애정원 다과나눔



꿈의오케스트라 공연



학교 공개수업



인애 물놀이



하계캠프 (워터파크)



은별회 음악회



생태체험 학습



한일교류캠프



추석 나들이



아동 장보기(자립)



문화예술프로그램 (음악)



전 아동 건강검진

한일 교류캠프를 다녀와서

한국과 일본의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일청소년교류캠프가 개최되며, 한 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에서 해외문화 접촉의 기회 제공 및 올바른 인격형성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한일 교류캠프

중등 2학년 황○○

기다리고 기다리던 캠프 당일 아침이 밝아왔다. 일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설레는 마음이 더 커졌다.

드디어 김해 공항으로 출발했고 도착하니 아는 친구들도 몇몇 보이는 것 같았다. 비행기를 탔고 정말 순식간에 일본에 도착했다. 바깥 풍경을 보니 일본에 온 것이 점점 실감이 나는 듯 했다. 출발하기 전보다 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 공항으로 들어섰다. 죄다 일본어여서 읽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대충 짐작하여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드디어 일본으로 첫발을 디뎠고 일본에 온 것을 환영해주는 일본 친구들이 보였다. 한글 맞춤법은 조금 틀렸지만 열심히 준비할 것을 보니 고마웠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교류캠프를 하였는데 또 작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첫 번째 일정은 박물관 이었다. 재미없을 것 같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웬걸 정말 신기한 것들도 많았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도 많아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숙소로 와서 저녁을 먹고 준비해온 선물을 교환했다.

첫째날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 하고 숙소로 올라갔는데 숙소에서 일본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둘째날에는 일본친구들과 공연을 관람하면서 어색했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조금씩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일본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쇼핑도 하고 간식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좋아하는 아이돌, 취향 등 나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점점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쉬움 마음이 커져갔다. 마지막으로 일본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2박3일 동안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한마음 어울림 중국을 다녀와서

아동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통해 다양한 해외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키우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연한 사고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다.

백두산 천지에서 만난 새로운 희망

고등 3학년 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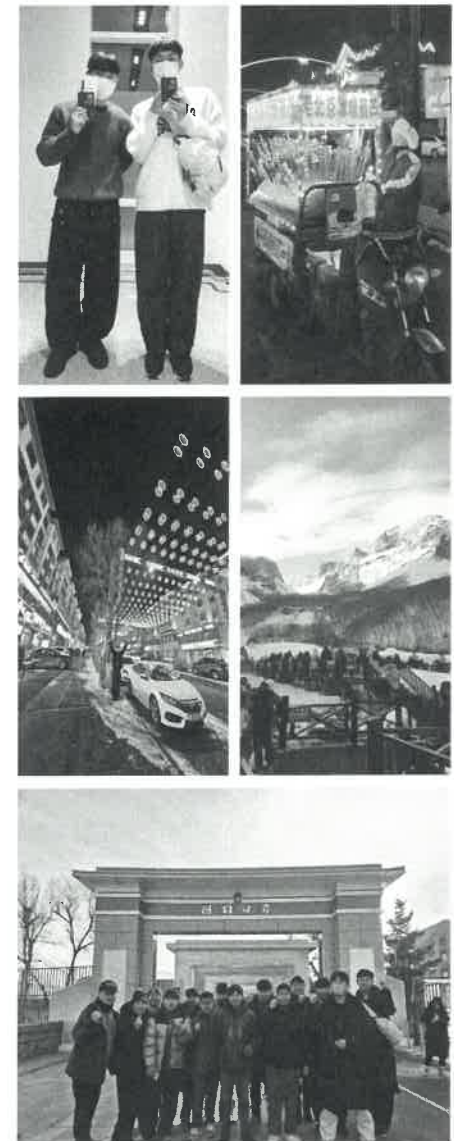
평소 나는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단순히 책이나 인터넷으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현장에 직접 가서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2박3일 동안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된 것은 정말 설레는 일이었다.

연길에 도착하자 현지 가이드분께서 친절하게 일정을 설명해 주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새로웠고, 거리의 간판에 한자와 한글이 함께 적힌 모습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다.

첫날에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인 두만강 중조점경지대를 방문했다. 저 멀리 건너편에 보이는 북한의 산과 마을을 직접 눈으로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서로 오고 갈 수 없음이 슬펐지만 그 곳에서 바라본 풍경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다.

둘째 날은 이번 연수의 하이라이트, 바로 백두산을 오르는 날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하얀 설산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벅차올랐다. 애국가에서만 들어봤던 '백두' 라는 이름을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하는 순간,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눈덮인 산자락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이번 중국 해외문화연수를 통해 단순히 해외여행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현지 문화를 체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간이 넓어졌고, 낯선 환경에서도 스스로 부 허보는 용기도 가질 수 있었다. 언젠가 다시 중국을 방문한다면, 꼭 백두산 정상에 올라 천지를 내려다 보며 또 다른 희망을 마음 한편에 새기고 싶다.

中国, 谢谢! (중국어, 고마워!)



대구 이월드를 다녀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및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 일상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이월드를 다녀와서

초등학교 6학년 한○○

나는 봄나들이로 인애 가족들과 함께 대구 이월드에 갔다
나는 놀이기구 타는 것이 무서워 놀이공원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애 가족들과 함께 간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놀이공원이 낯설어서 선생님 옆을 졸졸 따라다니며 구경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정희야 놀이기구 타면 재미있어 한번 타보자' 하셨고 나는 언니들과 함께 다니며 처음으로 바이킹을 타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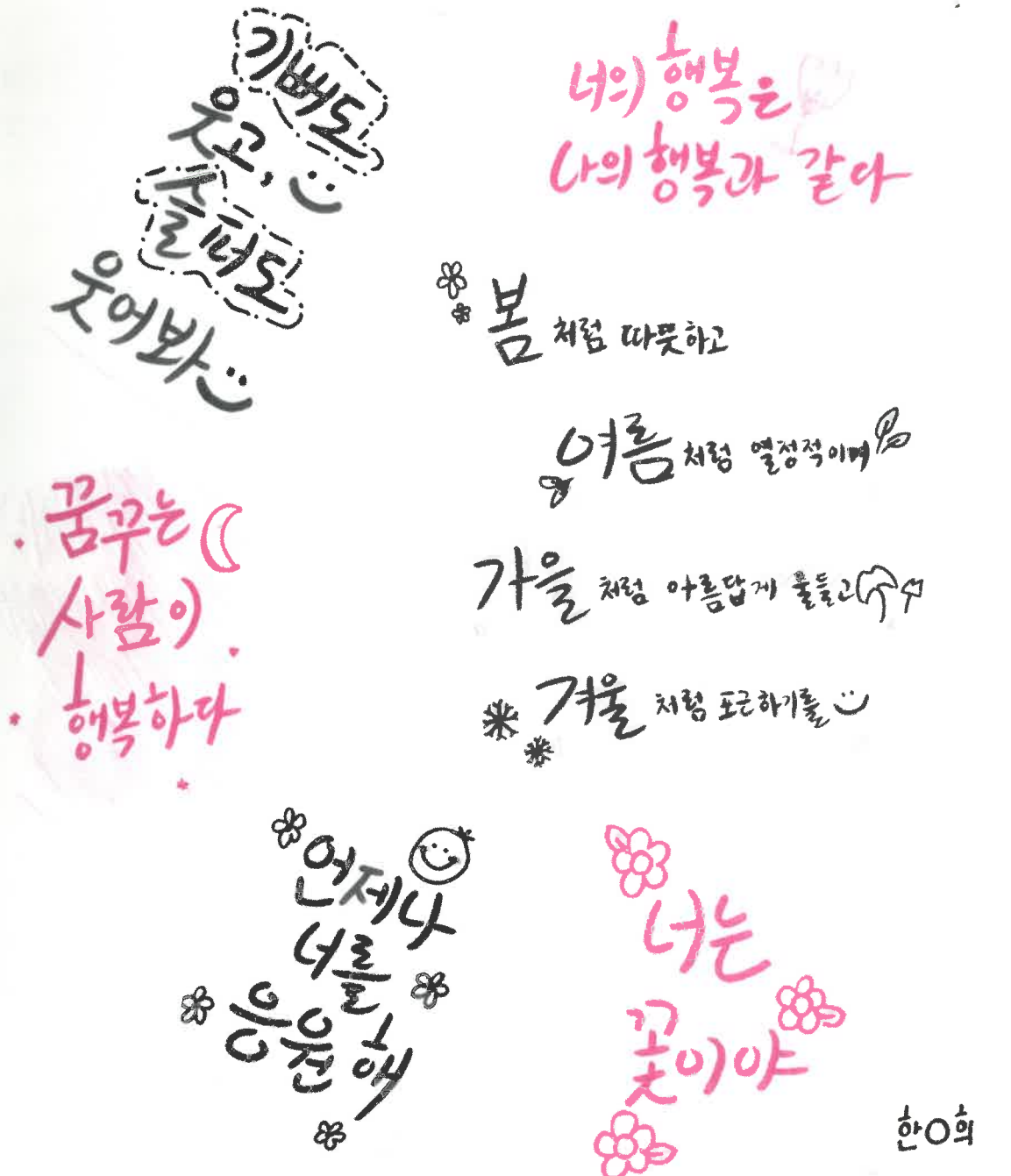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여서 "뭐가 무섭다는 거야?" 라고 생각 했는데... 웬걸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무서워서 손잡이를 꼭 잡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래도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놀이기구를 탔던 나에게 칭찬을 해준다.
"○희야 참 잘했어!"
점심도 맛있게 먹고 오늘하루 재미있게 마음껏 놀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



나의 작품 이야기 -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아름다운 글씨'를 뜻하는 말로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닌 글자에 감정과 개성을 담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작품이다.



2025 생명존중캠페인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은 OECD국 중 자살률 15년째 1위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에 발맞춰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매년 생명존중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월 9일에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애의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본인의 생명도 소중하게, 자연의 다양한 생명체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른 지역주민들에게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생명존중서약데스크 ♡♡

인애의집 현관에 항상 비치하여
오고가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존중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5월의 어린이날” 행사참석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를 향상하고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기 위한 어린이날 기념 “5월의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 놀거리를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 초등 3학년 김○빈

5월의 어린이날 행사를 갔다. 여러 체험을 했는데 재미있었다. 안전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다양한 우리들의 권리를 배워서 좋은 하루였다. 또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놀고 싶다.

♡ 초등 3학년 윤○나

5월의 어린이날 행사에서 경찰이랑 소방관이 하는 일을 직접 보고 체험도 해보았다. 멋있었고 신기했다. 어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친구들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체험이 많아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 ^^

♡ 초등 2학년 정○유

어린이날 행사에 가서 여러 체험도 하고 아동권리에 관련된 설명도 들었다. 선생님이 어린이도 소중한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셨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설명을 들으니 점점 알 것 같았다. 행사도 재미있었고, 교육도 유익해서 좋았다. 다음에도 어린이날 행사에 꼭 가고싶다.



자연과 하나되는 행복여행

아동들에게 습지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 교육을 통한 환경인식을 강화하여 자연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한 견문을 넓히고자 생태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생태체험을 다녀와서”

고등학교 3학년 강○○

나는 평소에 자연을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생태체험을 간다고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설레고, 마지 여행을 떠나는 기분처럼 너무 신났다. 자연 속에서 오랜만에 숨을 크게 들이마셨을 때는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생태체험에서 나는 그동안 책으로만 보던 나무와 꽃, 열매, 그리고 작은 동물들을 실 관찰할 수 있었다. 하나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구는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숲에서 하는 놀이와 체험들은 단순한 활동 그 이상이었다. 자연속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들을 보며 나는 더욱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마음이 커졌다. 이번 체험은 나에게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해 준 특별한 경험이었다.



탄소배출을 줄입니다!

탄소 줄이기

물기에 닿아주세요 - 등걸러, 도시락, 예코백	온실가스 줄이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 해주세요. - 부스는 바로끼리!	물이 필요 없어요 - 전자영수증 등
컵 아껴 쓰기 - 양치컵, 샤워시간 줄이기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 소문만 거품, 동영상 시청 시간 줄이기
전기콘센트를 뽑아주세요 - 연소는 빨리 끄기	함께 걷고, 자전거 타기 -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하기



일회용품 줄여요

일회용품 줄이면
탄소배출을 줄이세요.

“작은 행동이 재를 지킨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자신의 작은 실천이 모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지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실천한다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1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승차 대인보다 차량을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 전기를 아껴 써요**
불필요한 전기를 끄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뽑으세요.
- 3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써요**
단용이, 정수기용 컵을 사용하면 생수병을 사거나 사용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4 나무를 심어요**
C=CO₂

탄소배출을 줄입시다!

나의 꿈은 사회복지사

깨끗한 공기

1.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2. 자동차 타고다니기
3. 물을 낭비하지 않기

1. 나무심기
2. 자전거 타기
3. 물 아껴쓰기

우리가 만드자

탄소배출 줄여서 지구지킴이

CO₂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 전기 아껴쓰기!

🚗 대중교통 이용!!

🔌 안 쓰는 플러그 뽑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나의 약속!

1. 대중교통 이용하기

2. 전기 소비 줄이기

3. 재활용과 자원 절약하기

♻️ 친환경 경제품 사용하기

탄소는 우리 미래를 아껴주세요

남 치 저 추기요

대학을 진학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부산대학교 1학년 사회복지학과 조○○

인애의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했던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학업에 열심히 임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스무 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0세라는 나이는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받을 내딛는 출발선이기에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의 시간은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캠퍼스에서는 정말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었고, 그중에서도 사회복지학은 나아가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실천적 방법까지 전공 수업을 들으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단순한 직업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양과목에서는 한국문학, 프로그래밍, 중국어 회화, 영어회화 등 폭넓은 분야의 지식을 배우며 나의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운 것들을 일상에서 적용해 보며 나의 삶의 질과 자신감 모두 한층 더 정상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활동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서토론 동아리에서는 여러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시각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동제(학교축제)에서는 친구들과 대학의 축제를 즐기며 대학생활의 활기를 만끽하였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의 꿈은 사회복지사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제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애의집에서 보내온 시간, 그리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후원자님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나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꿈은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인애의집에서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을 열심히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 주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성장하여 세상을 지금보다 더 밝고 빛나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학부 과정을 충실히 마무리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고찰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여정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달려가는 인생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후원자님께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양덕중학교 1학년 황○○입니다.

저는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도 키가

많이 작아 예전에는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땅꼬마라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면 많이 속상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키성장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요즘은 더 밝은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놀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 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은 키가 크지 않아 걱정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해 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 받으며 노력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이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감사해요 후원자님 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해요.

사랑해요♡

